

# 순창청국장 항아토피 효과 입증

### 아토피 발생 동물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아토피 발생 효과적 저감화 밝혀

순창군이 발효미생물을 활용해 개발한 '순창청국장'이 아토피 발생을 저감화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건강기능식품 인증과 상품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대사성질염연구소 박성훈교수팀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균주를 활용한 순창청국장을 아토피 발생 동물에게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아토피 발생을 효과적으로 저감화 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균주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와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균주는 장류의 발효과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항균기능과 함께 고압멸균 조건에서는 열안정성, 단백질 가수분해 저항성, 장기 저장성도 높은 효과도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이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장건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순창청국장은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장건강과 관련한 면역(아토피 등) 및 비만, 대사성질환에 대한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흥원 장건강프로젝트 사업단에서는 이번 연구결과와 다양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순창청국장에 대한 면역기능 관련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순창청국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순창청국장을 글로벌 건강식품으로 육성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도연 원장은 "순창청국장이 아토피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실험 결과로 밝혀졌다"면서 "앞으로도 비만 해소 효과 등에도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순창청국장이 한국인의 장 건강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장건강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0억 시장에 머물고 있는 청국장 시장을 세계적으로 2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나포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문화관광·지역경제·농림축산·교육체육 등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시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사업을 문화관광, 지역경제, 농림축산, 교육체육 등 분야별로 74개 사업에 총사업비 5,575억원(국비 4,553, 도비 142, 시비 752, 기타 128)을 발굴하여 14일에 이환주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는 합파유원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옛다솜이야기원조성사업(307억원)이

추진된다.

특히 사적 제104호로 관리되는 황산대첩비지를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역사관, 교육관 등 성역화사업(100억원)이 추진된다.

지역경제분야도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행사부의 골목경제 활성화사업(10억원) 공모에 적극 응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 대강면,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120억원), 사매일반 산업단지 폐수중립처리시설(151억원),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60억원), 월락정수

장 시설개량사업(268억원)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된다. SOC분야는 국도 24호선 구간중 담양~순창~남원을 연결하는 지리산 강천산 연계도로 개설사업(2,100억원)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환주 시장은 "국가예산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원발전을 위하여 모든 직원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내용을 고도화하고 2차 사업발굴을 통하여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의회 마지막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간 운영하고 14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성과소벌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졌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기본적 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군민복지향상,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조성, 농어업경쟁력 확보, 관광 경쟁력 강화, 안전한 고창 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하여 곤충 유통사업단 구축 등 12건 20억원을 삭감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4,92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7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FTA폐업지원사업) 등의 변동으로 세입세출 예산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실시했으며 최종 결의된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4,788억원보다 280억원(5.8%)이 증가한 5,068억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921억원, 특별회계가 147억원이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사업 및 군정현황을 분청과 읍면이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둔하는 등 총 5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 추진 성과 분석·위로 등

임실군과 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재민)는 14일 자원봉사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자원봉사자를 위로하기 위해 제11회 자원봉사의 날 기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군민회관 예식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특강 및 동영상 시청, 오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생활개선회(회장 이신영)는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제2회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웃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원봉사자 10명에게 군수 표창이 수여돼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심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따뜻하



고 사람이 넘치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모든 군민에게 나눌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편 군 자원봉사센터는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종교교계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나눔 및 연탄배달,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진품명품 출장감정

### 내년 1월 3일 오후 1시부터 군청 문화강좌실서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유물들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보는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임실군편'이 내년 1월 3일 오후 1시부터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개그맨 김종국의 사회로 의뢰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등을 진품만, 김영복, 이상문, 양의숙 전문감정위원들이 감정 후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임실에서 열리는 이번 출장감정은 국내 유일하게 전문 감정위원들이 지역을 찾아 감정을 진행하며 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는 고사료들이 각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정 희망자는 군 문화예술팀 ☎ 640-2314 또는 읍·면사무소에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생 46명 배출

순창군이 14일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을 갖는 등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정예핵심리더의 지속적인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이날 황수주 군수와 혁신대학 졸업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제9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총 46명의 이번 졸업생은 지난 3월에 입학해 30강좌의 집합교육과 국내 선진농업 현장견학, 등 총 35강좌의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내용은 농산물 마케팅, 친환경농업, 농가 경영개선을 중심으로 한 농촌체험 및 리더십 등 농업의 다차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전문농업CEO반 대표인 서대현(65, 유등면)씨가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았고, 선재씨씨등 12명이 군수 표창패와 공로상을 수상했다.

9기 졸업생인 서대현씨는 "농업농촌 혁신대학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을 파악하고 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어 좋았고 6차 산업 등 실용적 내용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교육이 진행돼 농업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녹색생활 실천운동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해 전복도가 실시한 '2016년 시·군 녹색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시·군 녹색생활 실천운동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평가'는 전복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정과 상가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지자체와 도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생활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수기관 평가는 에너지저장 컨설팅 목표 달성률,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1인1톤 줄이기실천서약 참여율,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횟수 등의 항목으로 실시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보건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이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개소당 4주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우리마을 두레치매클리닉)은 각 읍면동 마을의 신청서를 받아 12월에는 주생면 제천마을, 이백면 과리마을, 보절면 양촌마을 총 3개소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교실(1시간)로 구성되었으며, 손거울·열쇠고리·머그컵 만들기 등 매주 새로운 공예품을 만드는 재미에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치매예방을 위해 1월~2월에도 운영의 2개 면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더 다양한 보건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63)620-7994/793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주차가능표지 전면 교체

남원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됨에 따라 1~2월 중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사각형 형태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내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장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 6급, 척추6급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는 모두 교체대상이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녹색) 표지는 굳이 표지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차량 교체 등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변경하기를 원하면 교체 발급 신청하면 된다.

집중 교체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되며 8월까지 기체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미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경찰, 교통사고 예방 협력치안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부안파출소에서는 14일 오전 부안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 교통사고 예방 및 절도예방을 위한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치안을 당부하였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 시 도로보다는 실내용 농로 이용하기,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 안전한 보행방법 설명 및 사례 중심 절도형 보이스피싱 예방요령과 절도 예방을 위하여 집을 비울 시 반드시 시정하기, 장거리 여행시 사전예약순찰제 적극 활용 당부와 함께 이장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고창회 소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녁·새벽시간대 밝은 옷 입기 등 안전한 보행습관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순창경찰서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탄 현금 다액업소 강·절도, 여성상대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에 돌입 했다.

특별방범활동 기간(16.12.12~17. 1. 1) 중에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 방범지단, ▲취약시간대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취약 장소의 가시적 순찰, ▲112응급대세 유지 ▲다가능 목검문을 실시하고 특히,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신고시에 관할 파출소장 및 경찰서 상황실장이 필수 현장임장하여 직접 지휘하는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 전기능 총력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장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평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